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약화와 입지여건의 문제점

문 남 철*

요약 :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인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하고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주요어 : 익산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대, 입지요인, 입지여건, 외국인 투자

1. 서 론

1) 연구 목적

자유지대(free economic zones) 설치의 기본적으로 “경제전체의 개방화 및 전체적인 규제완화 없이도 국제분업체제에 효율적으로 통합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가들이 하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정책방안”(Spinanger, 1984)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여타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세면제 등 예외적인 법적 조치를 허용하여 운용되고 있다. 특히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EPZ)의 설치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통해 국내공업화의 촉진과 공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 중의 하나이다. 수출가공지대가 선진기업들의 노동의 신국제적 분업구조 하에서 노동집약적이고 조립가공공정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국한된 업종만이 유치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부정적 논의도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수출가공지대 설치에 따른 수출증대, 고용증대, 주변지역사회의 개발 그리고 선진공업기술의 흡수 등 높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Warr, 1990; 김국태, 1997).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따라 1970년대에 약 10개국 40여 개에

*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불과했던 수출가공지대는 1996년에 43개 국가 839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 자유지대의 외국인투자 기업 수는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1천~2천 개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4만 개의 모 기업에 27만개의 자 회사로 확대되었다 (WEPZA, 1997).

우리나라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1970년대 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우리 경제의 여건에서 수출위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그들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국내의 저렴한 유희 노동력 및 사회간접자본(토지, 전력, 수도, 항만)과 결합함으로써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하고 지역사회개발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마산수출자유지대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이리(현재는 익산으로 지명이 개칭)에 수출자유지대¹⁾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그 후 마산수출자유지대는 투자유치, 수출증진, 고용창출, 기술도입, 지역개발 등 다방면에서 설치 당시 기대했던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금도 그 성장 잠재력에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익산수출자유지대는 입지상 내재된 문제점과 불리한 지역여건을 개선시키려는 정부정책의 결여 등으로 설립초기인 1970~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²⁾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³⁾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자유지대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일부관련부처에서는 수출자유지대의 외자도입 기업체에 대한 혜택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익산자유무역지대는 기능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지대의 성격

을 일반공단으로 전환시키고 그 부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수출가공구의 설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수출가공구가 설치국의 경제에 상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유지대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해서 또는 수출자유지대가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수출자유지대를 폐지하거나 제반관련제도의 적용을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 수출자유지대를 폐지하고 일반공업단지로의 전환은 기업경영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나 폐지에 따른 대외정책 신뢰성의 상실,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 역외가공업체 영향과 방만한 토지이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유지대의 현 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수출자유지대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크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유지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단계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계적 설치동향을 우선 살펴본 후 수출증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익산자유무역지대에 대해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게된 이유를 입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쇠퇴과정에 있는 익산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주로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본 후, 지역적인 차원에서 익산자유무역지대를 대상으로 입지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설치목적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수출증진, 고용증대와 선진기술습득 등 그 기능이 달성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 기능이 상실 원인을 입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전통적인 입지이론에 의한 분석보다는 수출자유지대의 적지선정에 필요한 입지여건과 익산지역이 제공하는 입지여건과의 비교를 통해 입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자유무역지대의 이론적 고찰, 자유무역지대의 세계적 설치동향, 한국의 수출자유지대 설치배경 및 입지조건과 동향 등에 관해서는 주로 국내 대학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내의 문헌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익산자유무역지대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간되는 자료 및 통계와 기존 관련 논문에 게재된 통계자료를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보다 자세한 입지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 7월 현재 가동 중인 20개 중 17개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 경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자유지대의 세계적 설치동향

경제자유지대의 근대적 기원은 동서무역의 요

충지로서 중계무역이 성행하던 이탈리아 북부 플로렌스(Florence)에 대한 이탈리아의 높은 관세 또는 통관세의 부과를 제거하기 위해 1574년 플로렌스의 통치자였던 메디치(Medicis)에 의해 자유항으로 설치된 ‘레그혼(Leghor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Chen, 1995). 하지만 자유지대의 현대적 모습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브롤터(1705년), 싱가포르(1819년), 홍콩(1841년), 아덴(1853년) 등에 자유항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구체화되었다(산업연구원, 1999). 1923년에는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인 Maxicali와 Tijuana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었고, 1934년에는 미국이 ‘외국무역지대설치법안(Establishment of Foreign Trade Zone Act)’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지대를 각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자유항과 자유무역지대들은 선적, 저장, 포장, 재수출과 같은 상업적 교역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김평광, 1985). 1960년대 전후에는 저비용의 생산입지를 추구하던 다국적기업들의 이해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와 수출진흥을 통해 공업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맞물려 상업적 교역활동에 기반을 둔 자유지대 대신에 제조업 중심의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자유지대들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아일랜드의 Shannon에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는 수출가공구라는 명칭의 특정지역이 최초로 설치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대만의 카오슝, 인도의 칸들라(Kandla), 한국의 마산과 익산 수출자유지대 등이 설치되면서 수출가공구의 설치는 본격화되었다(산업연구원, 1999). 1980년대 들어 많은 국가들은 수출가공지역 설치에 따른 수출증대, 고용증대, 주변지역사회의 개발 그

표 1. 세계 자유지대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자유지대 수	보유 국가
북미	213	미국(213)
중미	191	멕시코(107), 도미니카(27), 온두라스(15), 코스타리카(9), 기타(33)
남미	41	콜롬비아(11), 브라질(8), 기타(22)
유럽	81	유고(9), 불가리아(8), 슬로베니아(8), 기타(56)
중동	39	터키(11), 요르단(7), 기타(21)
아시아	225	중국(124), 인도네시아(6), 기타(95)
아프리카	47	케냐(14), 이집트(6), 수단(4), 기타(23)
태평양	2	호주(1), 기타(1)
계	839	

자료 : WEPZA(세계수출가공협회), 1997

리고 선진공업기술의 흡수 등 높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 이에 따라 1970년대 세계 자유지대는 10여개 국가 40여개 지역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43개 국가에서 839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19개국만 전체 자유지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50여개 국가 중에서 100여개 국가는 아직 자유지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자유지대의 75%가 아시아, 북미 그리고 중미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다.

1992년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World Bank, 1992), 전 세계에 약 200개의 수출가공구가 가동중이며, 이 중 아시아에 약 80개 이상이 존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도 약 80개 정도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가공구가 아시아와 중미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이유로는 첫째,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여 노동집약산업 및 자원 가공산업의 진출이 유리하고 둘째, 미국 및 유럽지역으로의 우회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셋째, 풍

부한 자연자원을 지향한 자원확보 목적의 투자에 유리한 점등을 들 수 있다. 북미에 분포한 자유지대는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로 수출진흥보다는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억제, 지역경제개발, 고용창출을 통한 상품생산과 내수에 초점을 두고 설치되었다.⁵⁾ 또한 세계 자유지대의 외국인투자 기업 수는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1천~2천 개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4만개의 모 기업에 27만개의 자 회사로 확대되었다. 현재 전세계의 자유지대는 설치국가의 경제상황, 설치지역의 입지조건, 설치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명칭⁶⁾도 설치목적과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3.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설치배경과 현황

1) 설치배경과 설치목적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종전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지향적인 개발전략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전환과 더

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확대,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기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임해지역에 특수 수출지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그들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국내의 저렴한 유희노동력 및 사회간접자본(토지, 전력, 수도, 항만 등)과 결합함으로써 수출진흥,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인 목적 외에도 지역사회의 개발촉진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60년대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출자유지역 설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 7월 정부는 수출자유지역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임해도시를 대상으로 적지선정에 착수하였다. 적지선정에서 가장 중요시된 요인은 수출대상국과의 수입원료 및 수출제품의 수송비용 절감문제였다. 그밖에 공업지역의 용지확보 가능성, 공업용수의 확보, 항구조건, 철도시설, 전력공급, 도로 및 주택(외국인 거주용), 통신시설, 공항(비행장과의 거리), 노동인력 수급, 외국인을 위한 휴양지(온천지 등), 위락시설(관광) 등이 입지선정의 요인이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마산이 최적지로 평가되어 1970년에 마산수출자유지대가 설치되었다. 1971년 가동을 시작한 마산수출자유지대는 설치 후 3년째인 1973년에 시설면에서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⁸⁾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자유지대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구와 정부의 수출자유지대 설치확장계획에 의해 제2차 수출자유지대의 설치가 계획되었다. 새로이 지정될 수출자유지대는 선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진흥,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이라는 1차적인

목적 외에 지역사회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었다. 적지선정의 주요요인도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이외에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호남지방을 대상으로 국제항구(군산)와 가깝고 수송의 편의성(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을 지니고 풍부한 노동력과 공업용수(만경강)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북 이리(현 익산시)가 제2차 수출자유지대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리에는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지방공업단지 조성정책에 따라 43만평(1,426천m²)의 넓은 이리지방공업단지⁹⁾가 1970년 3월 지정되어 있어 수출자유지대 설치에 따른 공업용지 확보가 용이하였다. 이러한 양호한 입지여건에 따라 1973년 10월 8일 이리지방공업단지의 일부(28만평, 992천m²)를 제2차 수출자유지대인 이리 수출자유지대(Irl export free zone)로 지정하고 1973년 11월 단지조성공사가 착수하여 1974년 12월 31일 총 43만평의 이리수출자유지대(28만평) 및 지방공업단지(15만평) 조성작업이 완료됨으로써 그 이듬해인 1975년 2월 이리수출자유지대 관리사무소가 개소되고 정상업무가 시작되었다. 즉 교통여건이 양호한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1978년까지 약 70여 개의 외국인 투자업체를 입주시켜 3만 달러의 수출과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개발촉진에 설치목적이 있었다.

그 후 1976년 1월 수출자유지대의 많은 부분(21만평)과 지방공단을 합쳐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28만평의 수출자유지대는 7만평(233천m²)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1977년 11월 수출산업공업단지 일부(3만 6천평, 118천m²)



그림 1. 익산자유무역지역 위치도

가 수출자유지대로 전환되면서 10만평(351천 m^2)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9년 9월 귀금속 제2단지조성¹⁰⁾과 더불어 수출자유지대의 일부(9천7백 평, 32천 m^2)가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전환되면서 다시 9만7천평(319천 m^2)으로 축소되었고, 1989년 11월 수출자유지대 일부 지역(2천7백평, 9천 m^2)이 자유지대 철책이설에 따른 도로면적 및 이미 분양된 공단주유소 면적이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현재 익산자유무역지대는 9만4천평(310천 m^2)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2) 익산 자유무역지대 현황

(1) 연도별 투자현황

익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설치 당시인 1975년 6개 기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동안 25~27개

기업으로 유지되다가 199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24개의 기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현재 32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1975년 6개 기업에서 1981년 15개 기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여 2000년 말 현재 5개 기업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단독투자의 경우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이다. 반면에 내국인 투자기업은 내국인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 1981년 2개 기업에서 점점 증가하여 현재 27개 기업이 입주하여 전체 입주기업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립초기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저조한 입주 실적은 1973년대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확대 기피와 수출자유지역으로서의 불리한 입지여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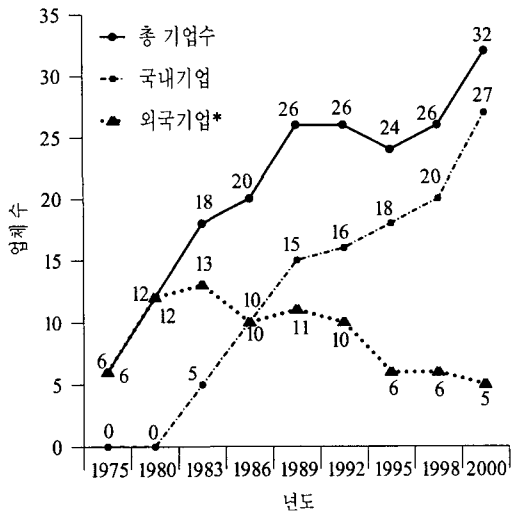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입지기업 현황

주 : *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단독투자와 합작투자기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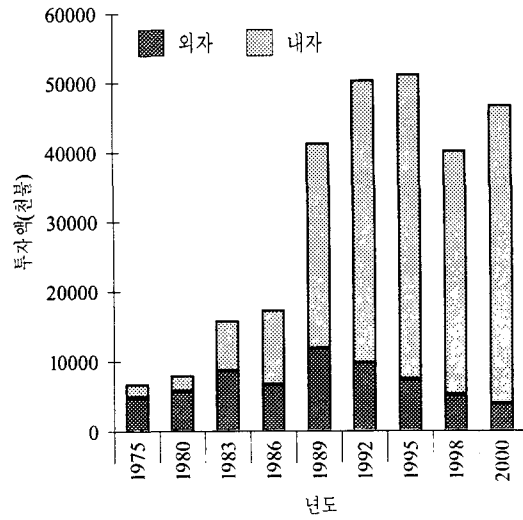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투자 현황

주 : 1993년 총 투자액은 5,612만 달러(내자 82.7, 외자 17.3%)로 최고치를 나타냄)

자료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1, 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연도별 투자현황도 입주기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1975년에는 내자 188만 달러와 외자 489만 달러 총 677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1993년 총 투자액은 5,612만 달러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점 감소하여 2000년 말 현재 총 투자액은 467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1975년 489만 달러가 투자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 1,177만 달러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391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액이총 투자액의 7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9년 28.5%, 2000년 말 현재 8.4%로 그 비중이 크게 악화되었다. 즉 설립초기에는 수출자유지역의 설립목적 을 발휘하여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동준비단계에서 자본을 투입하는 신규투자와 기존입

주업체들의 시설확장 등의 필요에 의해 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사업부진, 경영부실, 공장이전 등의 이유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익산수출자유지역에서 이탈하고 내국인의 투자기업이 점차 확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별 투자현황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설치된 익산수출자유지역은 설치 초기부터 일본기업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기업의 진출은 1975년 5개 기업을 시작으로 1976년 11개 기업으로 증가한 후 1988년까지 유지되다가 1989년부터 감소하여 현재 5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타 국가들의 투자는 매우 부진하여 지금까지

표 2. 입주기업의 국별 현황

(단위 : 업체 수)

년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스위스	예멘	합계
1975	-	5	-	-	1	-	6
1980	-	10	1	1	-	-	12
1983	5	10	2	1	-	-	18
1986	8	10	1	1	-	-	20
1989	15	9	1	1	-	-	26
1992	16	8	-	1	-	1	26
1995	18	5	-	1	-	-	24
1998	20	6	-	-	-	-	26
2000	27	5	-	-	-	-	32

참고 : 1981년에는 일본기업 3개 업체, 미국 1개 업체, 호주 1개 업체가 입주함

자료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1, 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미국, 호주, 스위스, 예멘의 투자가 각각 1개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32개의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는 5개의 일본기업만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4개 기업은 합작투자 기업이며 단지 1개의 기업만이 외국인 단독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투자 경향은 국내외적 산업환경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과 무역마찰의 회피를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임금상승 등 투자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동남아 등 새로운 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3) 업종별 투자현황 및 입지업체의 규모

2000년 말 익산자유지대에 가장 많은 투자된 제조업종은 섬유업종으로 전체 32개 입주기업 중 13개 기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기·전자업종 6개 기업, 기계·금속업종 5개 기업, 석공예 업종 3개 기업, 기타 업종 5개 기

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액에 있어서는 섬유업종이 총 투자액 약 4천 6백만 달러의 26.9%에 불과한 반면 전기·전자업종은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1%에 달해 평균투자액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종분포는 익산자유무역지대가 아직까지 설립초기 투자허용업종이었던 노동집약적인 업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첨단·성장유망업종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입주우선업종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주업체의 규모를 보면 1개의 기업의 제외하고 전부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며 특히 전체입주기업의 62%가 종업원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 제외한 섬유, 기계·금속, 석공예 등 여타업종은 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의 영세규모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입지는 입지지역에 대해 매우 미비한 고용창출 효과와 빈약한 입지지역 및 주변 지역사회의 개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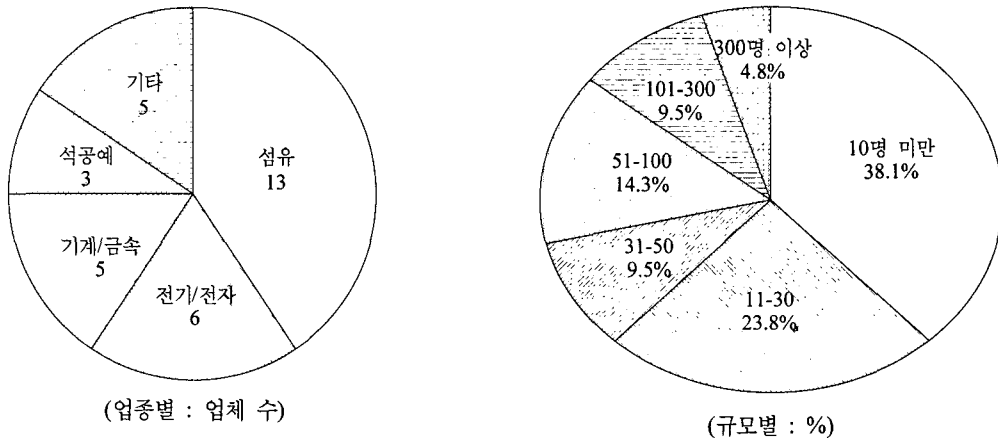


그림 4. 입주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분포(단위 : %)

자료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1, 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3)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인 효과

(1) 수출진흥 효과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75년 17만 달러를 수출한 이후 지속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여 1988년 1억4천7백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수출은 크게 감소하여 1999년에는 약 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감소는 생산구조면에서 1980년대 노동비용상승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노동집약적인 섬유 및 석공예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들 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되어 수출증대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2000년 말 현재 익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32개 업체 중 생산된 제품 전량을 내수판매에 의존하는 업체는 1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조사에서도 응답업체 17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100% 내수판매, 4개 업체가 50% 이상을 내수판매, 2

개 업체가 50% 미만을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었고 단지 2개의 전자업체 만이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입주업체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업체가 2001년 1/4분기 전체 총 수출액에서의 비중은 단지 14.4%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제일 교포가 투자한 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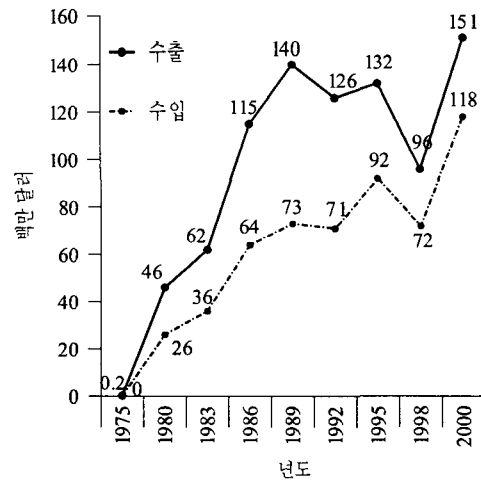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수출입 현황

자료 : 표 2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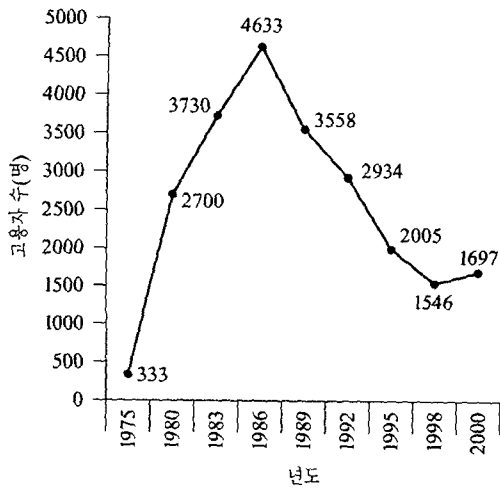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고용현황
자료 : 표 2와 동일

도체 및 광전지를 생산하는 한국고덴시(주)회사가 전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한 회사의 수출액이 익산자유무역지대 총 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까지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3천 3백만 달러가 많아 아직도 외화기득을 하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이후 수출 감소에 따라 점점 외화 기득액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고용증대 효과

수출은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한다. 익산자유무역지대에서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수출향상과 더불어 꾸준히 고용이 증가되어 1987년 5,107명의 최고 고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후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점차 고용이 감소하여 2000년 말 현재 1,697명의 고용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인원은 1999년 말 기준 익산시 총 제조업 종사자수 23,993명에 비하여 수출자유지역의 고용인원 1,697명은 7.0%에 해당하는 사실

을 감안한다면 그리 큰 고용창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비한 고용효과는 입주업체가 일부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더구나 자유무역지대가 쇠퇴해 가는 과정이어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현상 유지 내지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조사된 17개 기업 중 신규투자 및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자·반도체분야의 4개 업체에 불과하며, 일부 영세한 내국인 기업 중에는 향후 입주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공장부지를 불하해줄 것을 기대하며 사업전망과는 무관하게 계속 입주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이 자유무역지대의 효율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기술이전 효과

수출자유지대의 주요 설치목적 중의 하나는 선진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출자유지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신기술습득 및 보급을 통해 대내적으로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으로 국내수출산업의 기술 및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파급경로는 역내업체의 해외연수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과 외국인기술자 초빙을 통한 기술습득과 역외가공¹¹⁾을 통한 역외가공 수탁업체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에 의한 기술이전 그리고 숙련기술공의 역외배출 또는 원부자재의 국산대체를 위한 국내원부자재 공급처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다.

그러나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 투자형태를 보면 100% 단독 투자한 외국인 업체는 1개 뿐이고 나머지 4개 업체는 한국자본과 일본자본과의 합작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업종도 석재가공업, 모직물, 광반도체 및 광전지, 스타킹제조,

조명장치생산업체로 광반도체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비 기술집약적이며 가공도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도 아니다. 대부분이 단순 가공업체로서 익산지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화강암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업체를 통하여 해외 주재 본사로부터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및 기술 습득이나 해외연수를 통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외국인 기술자의 초빙을 통한 기술 습득 등 기술이전 확산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조사에서도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한 업체는 없었으며, 단지 3개의 업체만이 소규모 인원을 일본과 독일 등에 해외연수 및 기술자 파견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역외가공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 중 10개의 입주업체가 역외가공을 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품목은 견직물의 정련, 염색, 프린트 공정, 봉제, 스타킹포장, 모피류의 드레싱과 부품 조립공정 등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과정으로 역외가공 수탁업체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제공 등에 의한 기술파급효과 역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약화와 입지여건

1) 수출자유지대의 입지조건

수출자유지대가 기능 및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소(well-located), 시설(well-equipped), 행정(well-administered)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해외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저렴한 가격의 풍부한 부지확보와 향후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주변에 산업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넷째, 원자재, 부품, 생산된 제품의 수출입을 위한 수송비 절감과 인력이동의 편리를 위해 가능한 한 국제적인 항구와 공항에 인접해 있거나 고속

표 3.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단위 : 천 달러, 명)

기업체	입주일	주 생산품	투자(합작비율)	고용
이리모방(주)	75. 2. 14	모직물	한 : 963(83.9%) 일 : 200(16.1%)	18
한국대창산업	76. 8. 17	석재 가공업	일 : 784(100%)	7
한국고덴시(주)	80. 3. 20	광반도체 및 광전자	한 : 4,833(78.4%) 일 : 1,467(21.6%)	862
태창관동(주)	81. 5. 16	스타킹	한 : 186(50.5%) 일 : 182(49.5%)	50
고덴시테크놀로지(주)	00. 12. 15	조명장치	한 : 1,676(51.72%) 일 : 1,275(48.28%)	-

자료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1, 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넷째, 배후지역에 부품 및 역외가공업체 등 관련산업이 집적되어 기술 및 정보의 교류, 인력확보 및 교류 등이 용이해야 하며 다섯째, 수출자유지대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레저, 주거 등 생활편익시설이 확보된 배후도시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을 변화시키고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의지 등이 주요 입지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요인으로 공업용수의 확보, 전력공급, 통신시설, 창고시설의 구비 및 개발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출자유지대의 경우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반입과 완제품의 반출에 있어 물류비용 및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만이나 공항과의 접근성은 핵심적인 입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유지대는 설치목적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주요입지요인도 그 차이성을 지닌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치한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대는 위에서 살펴본 입지요인 중에서 부지요인, 노동력 확보, 항만 또는 공항, 관련산업의 집적 등이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고, 국제교역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 국제교역중심형 수출자유지대는 국제항만 또는 국제공항의 존재가 필수적인 요인이며 국제적 교역관계상 지정학적 위치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대와 국제교역중심형 수출자유지대의 복합형태인 생산·교역복합형 수출자유지대는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이 함께 입지하기 때문에 부지요인, 노동력 확보, 관련산업의 집적 그리고 국제항만 또는 국제공항 등이 주요 입지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대는 외국인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의 저임금과 결합하여 수출확대 및 공업발전을 이루는데

표 4. 수출자유지대의 일반적 입지여건

입지여건	세부 내용
SOC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수송 및 인력이동의 편리를 위해 국제적인 항구 또는 공항에 인접해 있거나 양호한 접근성, · 전력공급, 공업용수, 통신시설, 창고시설 등의 구비 및 개발 용이성.
부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충분한 부지, ·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부지면적, · 다른 지역과의 경계구분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 · 시장개척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규모, 질과 고용측면에서 다양한 노동시장에의 접근.
관련산업의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업체 및 역외가공업체의 집적.
배후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레저, 주거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보, · 다양한 인력 풀(pool)의 존재, 최신정보 입수, 사업서비스 확보, · 해외 선진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의 배후도시.
정책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입지여건을 변화시키고, 동태적 비교우위 창출하려는 지역당국과 정부의 정책 및 의지.

기본적인 목적을 둔 전형적인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대의 형태였다. 따라서 입지의 선정과정의 주요요인으로 항만과의 접근성, 노동인력의 확보, 공업의 용지확보 가능성, 철도 및 도로시설, 공업용수의 확보, 전력공급, 통신시설, 공항, 외국인을 위한 주거, 휴양지, 위락시설 등이었으며 특히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수송비 절감문제였다.

익산이 수출자유지대로 선정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익산의 발달된 교통조건이었다. 익산수출자유지대는 지정 당시 2만톤급 1선좌와 1만톤급 2선좌가 동시에 접안 가능한 군산외항이 인접(약 23km)해 있고 육로로는 호남고속도로와 철도인 호남선과도 인접되어 수송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방공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43만평(1,426천㎡)의 넓은 이리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어 수출자유지대 설치에 따른 공업용지 확보가 용이하였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였다. 공업용수는 인접한 만경강을 통해 1일 2만톤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력도 3만kW/H 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통신시설 등 제반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고속도로와 인근 대도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지조건이 익산을 수출자유지대로 선정하게 한 주요요인이 되었다.

2)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입지여건의 문제점

1980년대 후반까지 미흡하게나마 수출자유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던 익산수출자유지역이 1990년대 초반 이후 그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된 원인은 대내·외적인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수출자유지역 산업정책 이외에, 수출자유지대의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입지요인과 지역이 제공하는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 불균등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됨으로써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익산수출자유지대의 입지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자유지대가 내륙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반입과 완제품의 반출에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의 추가소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최근까지 군산항에는 정기화물선¹³⁾과 컨테이너 부두시설도 갖추지 못하여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도 입주기업들이 이용하는 주요 수출입항구 및 공항은 부산항 7개 업체, 인천 2개 업체, 인천공항 4개 업체, 평양항 1개 업체 등이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것도 수출물량의 일부분만을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군산항의 부두수용능력과 정기화물선의 부족 등으로 20-30분 거리의 인접 항보다는 2-4시간이 걸리는 부산항이나 인천항, 평양항을 이용

표 5. 주요 수출입항구 및 공항

	부산항	인천항	평양항	군산항	인천공항
업체 수	7	2	1	1	4

참조 : 8개 업체의 복수 응답

자료 : 설문조사

표 6. 전라북도 제조업 업종별 현황(사업체 수 기준)

(단위 : 업체 수, %)

업종	1995		2000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제조업	2,294	100.0	2,071	100.0
음·식료	366	15.9	341	16.5
섬유·의복	495	21.6	435	21.0
목재·종이·인쇄	305	13.3	268	12.9
화학제품	177	7.7	225	10.9
비금속광물	371	16.2	247	11.9
1차금속	21	0.9	21	1.0
금속기계	216	9.4	226	10.9
전기·전자	100	4.4	93	4.5
운송장비	76	3.3	108	5.2
기타 제조업	167	7.3	107	5.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함으로서 수출입활동의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을 가중시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입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자유지역 입주기업이 부산항과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컨테이너 1개당 비용은 군산항의 14만 4천원보다 곱절 이상 많은 55만원과 32만 5천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¹⁴⁾

둘째, 주변지역의 부진한 산업집적은 지역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73년 지정 당시 주변지역의 취약한 제조업기반은 수출자유지역의 발전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체의 유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가 첨단·성장산업구조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익산자유무역지대가 입지한 전라북도는 농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공업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고, 공업구조도 경공업 중심이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였다. 전라북도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업종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2000년 현재 음·식료품(16.5%), 섬유·의류(21.0%), 비금속광물(11.9%)이며 금속기계(10.9%), 전기·전자(4.5%), 운송장비(5.2%) 등 중공업가공형 공업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공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부진한 산업집적으로 입주기업은 부품 및 역외가공수탁업체의 확보, 기술 및 정보 교류, 숙련된 질적 노동력과 연구&개발 인력 교류 및 확보 면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 역외가공수탁 업체 조사에서도 응답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익산에 위치한 기업을, 5개 기업은 전주 광주, 안산, 진주 등에 위치한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9개 기업이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을 5개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좁은 부지

표 7. 부품 및 역외가공수탁 업체의 지역적 분포

	익산	전주	광주	안산	진주
업체 수	5	2	1	1	1

자료 : 설문조사

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익산수출자유지대는 1973년 설치 초기에 약 28만평이 수출자유지대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당초 수출자유지대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많은 부분이 일반공단으로 변경되어 현재 익산자유무역지대는 초기 지정되었던 면적의 약 1/3인 약 9만 4천평 만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자유지대의 규모축소로 입주기업의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공단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공단 위치가 시 중심부에 근접하여 더 이상의 확장여지가 없는 실정이며 기반시설들이 낙후된 상태이다.

넷째, 편리한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조건 이외에 익산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치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그 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단순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단순가공조립산업 역시 입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과격한 역내노사분규로 1,800여명의 대규모의 종업원을 고용한 독일기업 후레아 웨손과 200여명의 종업원을 지닌 한국·호주의 합작회사인 한호물산(후레아 웨손의 인수업체)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철수는 익산수출자유지대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설립초기 입주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투자의 효율보다는 투자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입주허용업종이 전자제품을 제외한 식품가공품류, 화장품류, 합성수지제품류, 고무제품류, 피혁제품류 등 22가지 품종에 달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주업종으로 공업단지로의 집적효과가 떨어지고 입주업체간 생산협업화도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를 위한 공동시설 등의 설치나 활용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부품 및 부속품의 공급업체가 외부에 위치해 적기, 적량, 적품 조달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익산수출자유지대는 내륙입지와 인접 항의 항로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의 증가, 산업집적의 부진에 의한 질적 노동력과 역외가공수탁업체의 부족, 협소한 부지에 의한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 추구의 어려움, 입지여건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 부족 등 입지측면에서 내포된 많은 문제점들에 의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왔다.

3) 입주기업의 입지요인과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

익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지요인은 조세감면, 저렴한 용지 및 공장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수송수단의 편리와 저렴한 노동력이 주요요인이었다. 반면에 역외가공수탁업체와 수출시장 개척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은 기업의 입지선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지요인은 익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기술집약적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가공

표 8. 입주업체의 입지요인

요인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중요치 않다
조세 및 세제 감면				
공장용지 가격				
수송수단의 편리				
노동력(임금과 규모)				
역외가공수탁업체				
지리적으로 시장개척 유리				

참조 : |는 응답업체 수를 의미함

자료 : 설문조사

표 9. 입주업체의 입지여건 만족도

요인	매우 만족	만족	개선 요망	불충분
조세 및 세제감면				
공장용지 가격				
수송수단				
노동력				
역외가공수탁업체				
노사문제				
주거 및 생활환경				

참조 : |는 응답업체 수를 의미함

자료 : 설문조사

업체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무역지대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의 면제 혹은 감면혜택¹⁵⁾, 국내 일 반지역의 약 20% 수준인 공장임대료,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장기간의 임대기간, 인접한 호 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저렴하고 풍부한 지역노동 시장 등은 자유무역지대로서 불리한 지역여건에 도 불구하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노동집약 산업체의 주요 입지선택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입주기업의 자유무역지대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과 공장용지 임대가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수송수단과 노동력, 역외가공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에 의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군산항의 시설과 정기 화물선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주변지역 관련산업 발달의 부족으로 전문기술인력과 가공외주업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노사문제와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5. 익산수출자유지대의 발전단계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어려움

1)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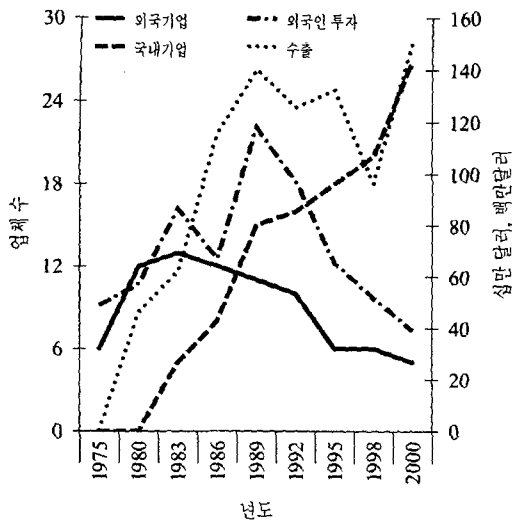
산업의 성장과정을 제품수명주기론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수출자유지대의 발전과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개의 단계를 거쳐 그 성장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그 발전단계를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¹⁶⁾ 설립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와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많아지고 한 두 가지 산업이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성장단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대액 규모에서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생산 및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성숙단계에서는 노동비용 상승, 노동력의 숙련도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단순가공조립산업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유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수출둔화, 생산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최종단계에서는 수출증진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입주기업은 자산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으며 철수하는 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지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구조적인 변동을 겪게 된다. 즉 쇠퇴기에 접어든 수출자유지대는 두 가지 구조전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가 기존의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명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적으로 사양하면서 수출자유지대의 특성을 상실하고 일반공단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익산수출자유지대의 발전단계를 외국인 직접투자 흐름,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

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추이, 수출상황 그리고 입주업종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발전단계의 구분은 매우 인위적인 구분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시대적인 단계구분을 통해 익산수출자유지역 변천과정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고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설립초기인 1973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익산수출자유지대가 지정·조성되고 입주기업의 업종 및 품종이 공고되고 각종 행정 및 지원기관이 확충되고, 수출자유지대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가 해마다 증가하여 1975년 5개의 업체에서 1981년에는 15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또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동준비단계에서 자본을 투입하는 신규투자에 따라 많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었고, 수출은 급격히 증가되어 1981년에는 약 5천 3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형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높은 고용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기술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을 익산수출자유지대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성장기(도입기+확장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외국인 투자 입주기업의 수는 15~12개 업체로 감소의 경향은 보였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외국인의 투자는 1980년대 초반에는 기존입주업체들의 시설확장 등의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1981년부터 내국인 단독투자 기업의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입주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과 고용은 꾸준히 증가되어 수출은 1988년에는 약 1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1980년대 초반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증대를 보였고 고용은



단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	-----	-----

그림 7. 익산수출자유지대의 발전단계

참고 : 단위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업체 수, 수출-백만 달러, 외자-십만 달러

자료 : 표 2와 동일

1987년 약 5천1백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983년 8.4%, 1984년 20.7%, 1985년 7.6%, 1986년 43.2%, 1987년 17.4%, 1988년 8.9%로 1980중반 이후 둔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익산수출자유지대의 발전과정상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한 성숙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단순노동집약형인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생산환경의 악화와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사업부진, 경영부실, 공장이전 등의 이유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수출자유지대에서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는 1987년 12개사, 1988년 11개사, 1992년 9개사, 1994년 6개사, 2000년 현재 5개사로 감소한 반면에 내국인

단독투자기업들의 입주는 1987년 14개사, 1992년 16개사, 1994년 18개사, 1998년 20개사, 2000년 27개사로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내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탈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도 급속히 감소하여 익산수출자유지대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25.6%, 1992년 19.3%, 1996년 13.0%, 2000년 현재 8.4%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임금상승과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약화에 따라 전년대비 1989년 -5.1%, 1990년 -9.0%, 1991년 -2.5%가 감소한 후 1992년, 1993년과 1994년에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4년 이후 다시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8년 익산수출자유지대의 총 수출액은 1994년에 비해 -34.7%나 크게 감소하였다. 고용자의 수도 1987년 5,107명으로 최대 정점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 말 현재 1,69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증대,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익산수출자유지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기능 상실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어려움

쇠퇴기에 접어든 익산수출자유지대의 재활성화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였다. 하나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명주기의 시작을 통해 재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적으로 쇠퇴하면서 수출자유지대의 특성을 상실하고 일반공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출자유

표 10. 기간별 입주업종 분포

(단위 : 업체 수, %)

	섬유	석재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	계
1975-1990	6(60.0%)	1(10.0%)	-	3(30.0%)	-	10(100%)
1991-2000	7(31.8%)	2(9.1%)	5(22.7%)	3(13.6%)	5(22.8%)	22(100%)
합계	13(40.6%)	3(9.4%)	5(15.6%)	6(18.8%)	5(15.6%)	32(100%)

자료 : 표 2와 동일

지대의 재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즉 1991년 11월 제4차 입주업종 개정에 따라 초기의 입주허용업종인 식품가공, 화장품, 고무제품, 섬유·의류, 완구 등 대부분의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제외시키고 전자,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6년 3월 제5차 개정에서는 입주우선허용업종을 첨단산업업종으로 더욱 강화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사무 및 회계용 기기, 전기 등 가전제품 및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용 기기·측정용 정밀 기기, 사진 및 광학 기기·시계 및 그 부품, 자동차·선박 및 그 부품 그리고 항공기 및 그 부품 등으로 변경하여 수출자유지대의 첨단산업단지화를 시도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익산수출자유지대에 입주하는 업종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즉 1991년 이후 입주업체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이전기간에 비해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섬유·의류와 석재가공업이 전체 입주업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성장 유망업종이라는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은 13.6%에 불과하다. 특히 1991년 이후 입주한 22개의 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단지 1건(2000, 12, 15, 조명장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국인 단독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익산의 입지측면의 문제점들에 의해, 특히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로 인한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체의 유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익산수출산업지대의 산업구조가 첨단·성장산업구조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익산자유무역지대 발전방안

익산수출자유지대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수출자유지대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며 나아가 자유지대를 폐지하고 일반공업단지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자유지대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자유지대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유지대의 폐지하거나 제반관련제도의 적용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대외정책 신뢰성의 상실,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유지대와 관련된 역외가공업체 영향과 방만한 토지이용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

서 익산자유무역지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 입지 여건에 적합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의 경우 내륙입지의 문제와 협소한 부지 등 입지측면에서 내포된 많은 문제점들에 의해 교역 및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입지 여건상 국제교역 중심형 또는 생산 및 교역 복합형 수출자유지대보다는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대로 육성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익산이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대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침체된 자유지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산업체의 입주를 증대시키고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자연퇴출을 통해 익산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전환시켜 새로운 발전 단계를 통해 재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관련산업 집적의 부진과 입주기업의 업종이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구조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으로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규모는 비교적 작으나 자유지대와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40여 개의 의류 및 섬유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의류 및 섬유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¹⁸⁾ 특히 국내 4대 내의 생산업체가 모두 입지하여 의복산업에 대한 집적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의복산업을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업체의 유치를 통해 섬유·의류산업에 특화된 수출자유지대로의 육성도 가능하다. 업종의 특화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 전문 노동력의 확보 및 교류, 전문 공급업자,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외부자원 이용측면에

서 집적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선진기술을 지닌 외국 섬유·의류업체의 투자유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 2000년 8월 29일 국무회를 통과한 자유무역법시행령에 따라 10월 6일 지정된 군산자유무역지대와 연계시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향후에도 익산자유무역지대의 현행제도를 유지하여 군산자유무역지대의 Sub-Zone으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즉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형태¹⁹⁾와 유사하게 항만에 형성되는 군산자유무역지대는 생산기능 이외에 물류기능, 교역기능, 상업 및 유통기능을 포괄한 복합형 자유지대로 개발하고 익산자유무역지대는 군산자유무역지대에 부속되어 생산활동지대를 유지하게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자유무역지대가 기계·자동차 등 첨단·성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경우 지금까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익산자유무역지대는 원료조달, 제품의 판매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요약 및 결론

익산수출자유지역은 1974년 설치 이후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하고 지역사회개발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수출자유지대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익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32개 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단독투자 1개와 합작투자 4개 등 5개 업체로 당초 수출자유지대가 도모하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선진기술이전 등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주업체도 섬유·의류와 석공예 업종이 전체 입주업체의 50%를 차지하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전체입주기업의 62%가 종업원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인 업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지지역에 대해 매우 미비한 고용창출 효과와 빈약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사회의 개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이행되지 못하고 영세한 내국인 투자업체에 의한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집중을 보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요인은 익산자유무역지대에 내재된 입지상의 문제와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자유지대의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 불균등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됨으로써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지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자유지역이 내륙에 입지하여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반입과 완제품의 반출에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의 추가소요를 가져오게 하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 수출자유지대의 입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지정 당시 주변지역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은 수출자유지대 발전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체

의 유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입지여건의 개선사기고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이 약화되었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좁은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수출자유지대의 규모축소로 입주기업의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단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공단 위치가 시 중심부에 근접하여 더 이상의 확장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지측면의 문제점들에 의해 1990년대 초부터 실시된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체의 유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익산수출산업지대의 산업구조가 첨단·성장산업 구조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1991년 이후 입주업체가 이전기간에 비해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섬유·의류와 석재가공업이 전체 입주업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성장 유망업종이라는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은 13.6%에 불과하다. 특히 1991년 이후 입주한 22개의 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단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국인 단독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자유지대를 폐지하고 일반공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자유지대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자유지대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유지대의 폐지하는 것은 대외정책 신뢰성의 상실과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 등으로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익산자유무역지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 입지여건에 적합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 입지여건에 적합한 발전방안 몇 가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전환시켜 재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변지역의 관련산업 집적의 부진과 입주기업의 업종이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구조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인접한 산업단지와 지역업체를 고려할 때 의복산업을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에 특화된 수출자유지대로의 육성도 가능하다. 지역적 집적 산업으로의 업종의 특화는 규모의 협소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과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계가 가능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외국 섬유·의류업체의 투자유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새로이 지정된 군산자유무역지대와 연계시켜 군산자유무역지대의 Sub-Zone으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자유무역지대가 기계·자동차 등 첨단·성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경우 지금 까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익산자유무역지대는 원료조달, 제품의 판매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지역적 입지여건만을 고려한 것으로 주변국가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주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s)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region)은 개성적인 내용을 갖는 범위로서 이해되며, 지대(zone)는 대상을 나타내는 구역의 범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을 위해 구획된 일정한 구역의 범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대로 칭한다.

- 2) 2000년 말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78개의 업체에서 14,415명이 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중 59%가 외국인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주업체의 업종도 전기·전자 및 정밀기계(51.3%)로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말 현재 익산자유무역지역에는 32개 업체에 1,69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중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은 단지 1개 기업뿐이고 입주업체의 업종도 대부분이 섬유·의류업종(40.6%)에 집중되어 있다.
-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첨단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광주 평동, 천안, 목포 대불단지에 설치되었고,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독려, 외국인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11, 17)의 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수출자유지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제조활동 이외에 물류·교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2000, 7, 13)이 시행되어 군산자유무역지대(2001, 10)가 새로이 지정되었다.
- 4) 198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경제특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는 설치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이 기존의 자유무역지대와는 약간 다르다. 형태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업, 연구개발 등을 포괄하고 지역 범위도 산업단지를 넘어서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기존 자유무역

- 지역들도 첨단기술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기능들이 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5) 미국은 국내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고관세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국내생산이 과잉상태를 나타내자 이의 돌파구로서 자국기업의 입지를 원칙으로 한 외국무역지대가 설치되었다. 즉 미국의 자유무역지대(FTZ)는 지리상 중계무역이 아니라 국내 경제회복을 위한 자국산업의 진흥, 대외통상의 장려, 고용의 창출 등을 주목적으로 193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설치는 1980년대 들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던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실질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이전에 12개에 불과하였던 자유무역지대는 1980년에는 68개(9개 Sub Zone 포함), 1989년에는 299개(142개 Sub Zone 포함)로 확대되었고 2000년 2월말 현재 미국 자유무역지역은 General Purpose Zone 238개, Sub Zone 383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 6) Diamond(1988)에 따르면, 자유지대에 대한 명칭은 각 국가별 설치목적에 따라 free trade zone, foreign trade zone, industrial free zone, export processing zone, special economic zone, tax free zone, investment promotion zone, free economic zone, free export zone, foreign access zone 등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유지대는 '일국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정 지역 또는 지구'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예외적인 허용조치의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설치목적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국제경제 관계상의 일정 경제활동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관세 등 다른 조세 등을 경감해 주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치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유지대(free zone)이란 용어로 구체화되고 있다.
 - 7)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미국과 일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남해안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제1차 대상지로는 마산, 삼천포, 거제, 울산, 포항, 목포, 여수 등지였다. 당시 마산의 입지조건에 관해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수출자유지역 25년사, 66-79 참조.
 - 8) 1970년 7월 14일 입주기업체의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허가업체의 총수는 1970년 4개사, 1971년 22개사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2년 동안의 가동업체는 6개사로 당초 100개 업체 유치계획의 22%만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2년 미국의 중국 승인, 일본의 중국 UN가입 찬성 등으로 미국 및 일본과 대만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되자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대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반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2년에 입주기업체수는 70개사로 증가되었고, 1973년에는 무려 115개사, 1974년에는 가동업체 98개사라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설치이래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1997, p. 355.
 - 9)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69년에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가 지정되어 26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지방공업 육성정책에 의해 이리 지방공업단지는 1969년 2월 대통령 연초 지방순시시 이리지방공업단지 지정이 지시되어, 동년 10월 공사를 착공, 72년 1월 이리지방공업단지 분양이 개시되었다. 1973년 5월 건설부에 의해 공업단지장려지구(장려지구 내에서 조세감면 부여)로 지정되었고, 동년 10월 지방공업단지 일부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성되었다.
 - 10) 이리 귀금속·보석공단은 귀금속·보석산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집단 육성하여 집적이익의 추구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75년 8월 제7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집단육성

방안을 확정됨으로써 설립되었다. 1975년 11월 이리에 7,434평의 귀금속보석 제1공단을 조성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던 업체들을 이리 귀금속·보석단지에 집단화시켜 1976년 말부터 산업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 수출자유지역의 일부를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전환 후 9,708평의 귀금속 제2단지를 조성, 1986년 아시안 게임과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1987년 4월 귀금속 제2단지가 업체에 분양되었다.

- 11) 역외가공(The out Zone Processing)이란 생산공정 중 일부공정을 자유지역 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생산공정의 일부가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가절감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둘째,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만으로 생산에 필요한 전단계의 제조공정을 이룰 수 없는 경우 셋째, 생산주문량이 많아 기업체의 자체생산 시설과 인력만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생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수출자유지역의 역외가공은 자유지역 본래의 성격이나 기능으로 보아 합당한 방법이 아니나 역외가공을 통해 수출자유지역의 지역적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생산설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의 원가절감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또한 역내업체와 역외가공업체간에 생산공정을 분담함으로써 투자비의 부담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3) 1998년부터 군산항과 동남아지역간에 부정기적인 컨테이너선이 운항되었으나 물동량의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된 후 2001년 1월 이후 군산항과 동남아간 주 2-3회의 정기 컨테이너선이 취항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군산항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박스의 규모는 대부분 10ft로 부피가 큰 섬유·의류제품을 선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14) 중앙일보(2002, 04, 01)
- 15) 법인세 및 소득세는 사업개시 후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은 50%감면되며, 지방세(취득세, 재산

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최소 5년간 100% 그후 3년간은 50% 이상으로 하되 8-15년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 및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외국인투자 신고 후 3년 이내에 도입되는 자본재의 100%로 감면을 받는다.

- 16) 이러한 수명주기 이론은 ILO and UNCTAD (1988)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자유지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7) 수출자유지대 입주업종의 연대별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 7월 상공부공고 제5879호로 발표된 최초 입주업종은 피혁제품, 의류 및 과학기기 등 22개 업종이었으며, 그 이후 1971년 6월 제1차 개정에 의해 기계류품목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어 1974년 3월 제2차 개정으로 비철금속제품류와 철강제품류가 포함되었으며, 1977년 제3차 개정에서는 합성수지 제품과 섬유제품이 제외되고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이 포함되어 21개 업종으로 축소되었다. 1991년 11월 제4차 개정에서는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출자유지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제외시키고 전자,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제품 등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업종으로 전환하였으며 입주허용 업종도 10개로 크게 축소시켰다. 1996년 3월 제5차 개정은 입주우선허용업종을 첨단산업업종으로 더욱 강화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개발, 사무 및 회계용 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용 기기, 자동차·선박 그리고 항공기 및 그 부품 등 10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입주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관리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
- 18) 익산자유무역지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 및 귀금속단지)내에 업종별 입주업체는 귀금속단지에 집단화된 귀금속업체를 제외할 경우 92개의 입주업체 중 섬유(41개사, 44.6%), 기계·금속(13개사, 14.1%), 전기·전자(11개사, 12.0%), 식품(6개사, 6.5%), 석재(3개사, 3.3%), 기타(14

개사, 15.2%)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높은 산업집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의 섬유산업 집적은 전라북도에 우리나라 4대 내의 생산업체가 모두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 19)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는 물류생산복합형으로 그 성격상 다른 나라와의 교역 물동량이 많은 국제항이 위치한 주나 교통요지이면서 상업 및 공업중심지역이 입지해 있는 주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는 General Purpose Zone(GP)과 Sub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GP는 항만이나 공항 인근에 일종의 단지를 형성하여 존재하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물류유통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Sub Zone은 일종의 보세공장과 유사한 것으로서 GP의 주변에 부속되는 형태로 반도체, 전자제품 및 부품, 통신 및 컴퓨터,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조선, 정유, 소비재 등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참 고 문 헌

김국태,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동남경제학회 경제학론집 6(2), pp.109-129.

김성열, 1979,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지분석,” 경북대 사범대 지리과 동창회 지리교육 6, pp. 65-89.

김혁식, 1998, “외국인 투자유치의 비결, 마산에서 찾아라,”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 통권 224호, pp.153-165.

김평광, 1985,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성에 관한 비교연구-한국과 자유중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성호·홍진기, 1990,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서울: 산업연구원.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마산.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 지정방안, 서울.

심재민, 1980,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지구조와 연관 효과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5, pp.410-449.

이기석, 1987,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역외가공과 지역 연쇄,” 도시문제 22(9), pp.52-61.

이성봉·김종근·이형근, 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 :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인선, 199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하청업체 구조와 입지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론집 28, pp.57-82.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1, 익산자유무역지역현황, 익산.

정수원, 2000,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발전 방안,” 무역학회지 25(4), pp.3-28.

황만익, 1988, “제조업 고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사례연구,” 지리교육론집 19, pp.13-29.

Amirahmadi, H., and Wu, W., 1995,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Asian Survey* 39(9), pp.828-840.

Chen X., 1995, “The Evolution of Free Economic Zones and Recent Development of Cross-National Growth Z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9(4), pp.593-621.

Dean S., 1984,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ome Evidence from Asia,” *Wirtschaftliches Archiv* 120(1).

ILO and UNCTAD, 1988,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Geneva.

ILO, 1998, *Labour and Social Issues Relating to Export Processing Zones*.

Warr, P., 1990, “Export Processing Zones,” in Milner, C.(ed.), *Export Promotion Strategies: Theory and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 Diamond, W.H., Dimond, D.B., 1988, *Tax-Free Trade Zones of the World*, Matthew Bender.
- WEPZA, 1997, *WEPZA International Directory of Export Processing Zones & Free Trade Zones*.
- WEPZA, 1998, *The Global Network of Free Zones*

in The 21st Century.

- World Bank, 1992, *Export Processing Zones*, Washington D.C.
- www.mocie.go.kr/masan/index.htm; www.mocie.go.kr/freezone/ikhome.ht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5, No. 2, 2002(249-275)

The Locational Conditions and Declining Function of Iksan Free Trade Zone

Nam-Cheol Moon*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e-mail: mnc83@hanmail.net)

Abstract : Iksan Export Free Zone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export promotion, the employment augmentation,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motion through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declining function with dimin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xportation and employm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The decline factor of the function was inherent in disregard of the necessary locational factors for Export Free zone's function promotion and without respect to conditions in a choice of location. And the present labor 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 has some difficulties with a modification of Export Free Zone's industrial structure to a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ccording to the lack of coherent policy, a limited plottage and a lack of the extensible space decrease the effect of agglomeration and economic of scale. And the lack of governmental policy to create a dynamic advantage comparative with an amelioration of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region diminish the regional attractive forc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Key words : Iksan Free Trade Zone, Export Free Zone, Factor of location, Locational condi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